

제 298호 · 2015년 3월 18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하얼빈발 중-러 정기화물열차 첫 운행 개시
2. 베트남, 아시아 첨단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부상
3. CEVA, 싱가포르에 에너지 물류 허브 개장
4. Transnet社, 니쿠라(Ngqura)항 육성 위해 대규모 투자 지속

물류시장동향

1. 인도 자와할랄 네루 항만 확장 건설에 350만 달러 투자 예정
2. 중국, 태국-라오스와 함께 복선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하얼빈발 중-러 정기화물열차 첫 운행 개시

- 2015년 2월 28일 석유탐사설비를 만재한 컨테이너 전용열차가 중국 최북단의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尔滨) 상팡(香坊)역을 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러 첫 정기화물열차의 정식 운행이 개시됨
 - 전체 운행구간은 6,578km이며, 하얼빈 상팡역에서 출발하여 중국 네이멍구(内蒙古)의 중러 국경인 만저우리(满洲里)¹⁾를 통과한 후 TSR을 이용하여 목적지인 러시아 비크랑(Biklyan)역까지 운행함
- 하얼빈발 중-러 정기화물열차는 컨테이너 20개로 편성되었으며, 하얼빈 내륙항(드라이포트)에서 집하, 세관신고가 가능함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 하얼빈철도국은 26%의 운임 할인 혜택을, 하얼빈세관과 헤이룽장성 수출입검사검역국은 신속통관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중-러 정기화물열차를 이용하면 헤이룽장성에서 러시아 중부지역까지 기존 운송방식에 비해 운송비 절감, 운송시간 단축이 가능함
 - 항공운송 방식에 비해 운송비를 3/4 절감 가능하며, 일반 LCL 운송방식에 비해서는 운송기간은 2/3 이상 단축, 운송비는 25% 이상 절감 가능함
- 하얼빈진스다이물류유한공사(哈尔滨金时代物流有限公司) 담당자 주옌위(鞠艳宇)씨에 의하면 대부분 해상운송을 이용하던 러시아향 화물을 중-러 정기화물열차로 수송하면 운송시간은 기존의 30~4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됨
 - 중국 국내구간 운송을 예로 들면, 컨테이너 7개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내운송비가 4만 위안(약 721만원)²⁾ 소요되는데 반해 중-러 철도운송을 이용하면 국내운송비가 1.4만 위안(약 253만원)으로 크게 절감됨
- 중-러 정기화물열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헤이룽장성은 향후 대러 및 대유럽 콜드체인 전용열차, 대러 전자상거래화물 전용열차를 개통할 계획임
 - 콜드체인운송을 통해 헤이룽장산 돼지고기,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품을 러시아, 유럽으로 수출하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온도조절 화차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운송한다는 계획임

자료 : www.chinawuliu.com.cn, 2015.3.3.

김은우 전문연구원 (☎ 051-797-4772, hisgrace@kmi.re.kr)

1) 하얼빈-만저우리 구간 철도는 빈저우(滨洲)철도로 총연장은 1,004km.

2) 1위안 = 180.37원, 외환은행 2015년 3월 18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 베트남, 아시아 첨단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부상

- 베트남이 의류, 자동차와 더불어 첨단 전자제품 생산 및 수출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의 아시아 및 신흥시장 담당 Principal Economist인 Dickson Ho씨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9.6% 증가했음
 - 또한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홍콩무역발전국은 생산분야에 있어 베트남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특히 2013년 이후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전자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의 첨단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실제 삼성전자, 인텔, LG전자 등 첨단기술 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올 1사분기말까지 중국의 노키아 휴대폰공장을 문닫고 베트남의 노키아 공장으로 옮길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음
 - 베트남 전자제품 산업은 하노이, 타이응우옌, 박닌 등 베트남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더불어 FTA 체결,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등을 계기로 베트남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2014년 12월 베트남은 상호 무역규모가 300억 USD에 이르는 자국의 3대 무역대상국인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
 - 금번 FTA 체결로 세번(tariff line)기준으로 관세의 90%가 철폐될 것임
 - 또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베트남은 특수 및 일반창고 산업은 물론 베트남 국내 및 아세안 지역 운송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세계 주요 물류기업들 역시 베트남 진출 또는 이 지역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유럽의 Rhenus Logistics는 호치민시를 거점으로 하는 독립법인을 베트남에 설립, 베트남에 보다 폭넓은 물류 네트워크 제공 및 물류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함
 - Yusen Logistics사는 하이퐁시에 다용도 창고단지를 건설했고, CEVA Logistics 하노이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했음
 - CEVA Logistics의 하노이 지점은 공급사슬관리 및 항공, 해운, 계약, 창고, 배송, 지역운송 및 국내 부가가치서비스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3.12.

전형모 전문연구원 (☎ 051-797-4683, hmjeon@kmi.re.kr)

□ CEVA, 싱가포르에 에너지 물류 허브 개장

- 글로벌 물류기업인 CEVA 로지스틱스가 싱가포르에 에너지 허브를 개장했음
 - 신규 시설은 싱가포르의 에너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동남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시설은 48,000m² 규모로 물류 창고 및 사무실로 구분되며,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에너지 허브는 주룡 항만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음
- CEVA의 Xavier Urbain 최고경영자는 “CEVA가 동남아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허브 및 세계 무역의 통로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이며, 신규 시설을 통해 CEVA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향후 2020년까지 CEVA 전 세계 수익의 50%를 아시아 지역에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고객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신규 시설에는 석유·가스 및 같은 에너지화물의 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고·보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크로스도킹 흐름에 따라 관리·운영되도록 설계되었음
- 이 외에도 특수화물, 중량화물 등의 전용 취급 공간이 구축되어 있으며, 고객들이 창고 작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물류창고 시설의 총 면적은 26,000m²이며, 5,000m²의 추가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 CEVA의 Elaine Low 동남아지역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국제 물류에 있어서 전략적인 입지와 우수한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으로 에너지 업계의 중요한 환적 허브”라고 언급했음
 - 또한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싱가포르에 에너지 물류 허브를 개장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덧붙임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3.10.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Transnet社, 니쿠라(Ngqura)항 육성 위해 대규모 투자 지속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영물류회사인 Transnet사가 이스턴케이프주(州)의 니쿠라항에 2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신규 개장함
 - 이에 따라 니쿠라항의 선석은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증가되었으며 하역능력은 기존의 80만 TEU에서 220만 TEU로 증대됨
 - 향후 니쿠라항의 효율성 향상과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대폭적인 하역시간 감축이 기대됨

<Ngqura항 위치>



<Ngqura항 전경>



자료 : www.transnetportterminals.net

- 금번 신규 선석 개발을 위해 Transnet사는 20억 자르(ZAR, 약 1억 6260만 USD)³⁾를 투자함
 - 신규 선석은 수심 16m로 준설되었으며, 2기의 megamax STS(ship-to-shore) 및 18기의 RTG 크레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만 장비 및 시설이 구비됨
- Transnet사는 니쿠라항을 아프리카의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스턴케이프주(州)에 향후 7년간 30.1억 자르(ZAR, 약 2억 4390만 USD)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본 투자는 이스턴케이프주(州)의 Ngqura항, Elizabeth항 및 East London항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함
 - 추가 투자는 해당 지역의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 기반시설 등에 투입될 예정임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5.3.11.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3) 1 USD = 12.3 ZAR 외환은행 2015.3.13. 매매기준율 적용

물류시장동향

□ 인도 자와할랄 네루 항만 확장 건설에 350만 달러 투자 예정

- 인도 터미널 관리 회사인 PSA 인터네셔널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350만 달러 투자를 확정했음
 - 본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여 확장 공사를 하는 것임
 - 본 프로젝트로 3개 컨테이너 터미널 처리능력은 두 배 이상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 자와할랄 네루 항만의 처리능력 향상에 따라 인도의 해상 무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확장 이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컨테이너 처리량은 4.8만 TEUs로 예상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5.3.5.

김주혜 연구원 (☎ 051-797-4779, joohye915@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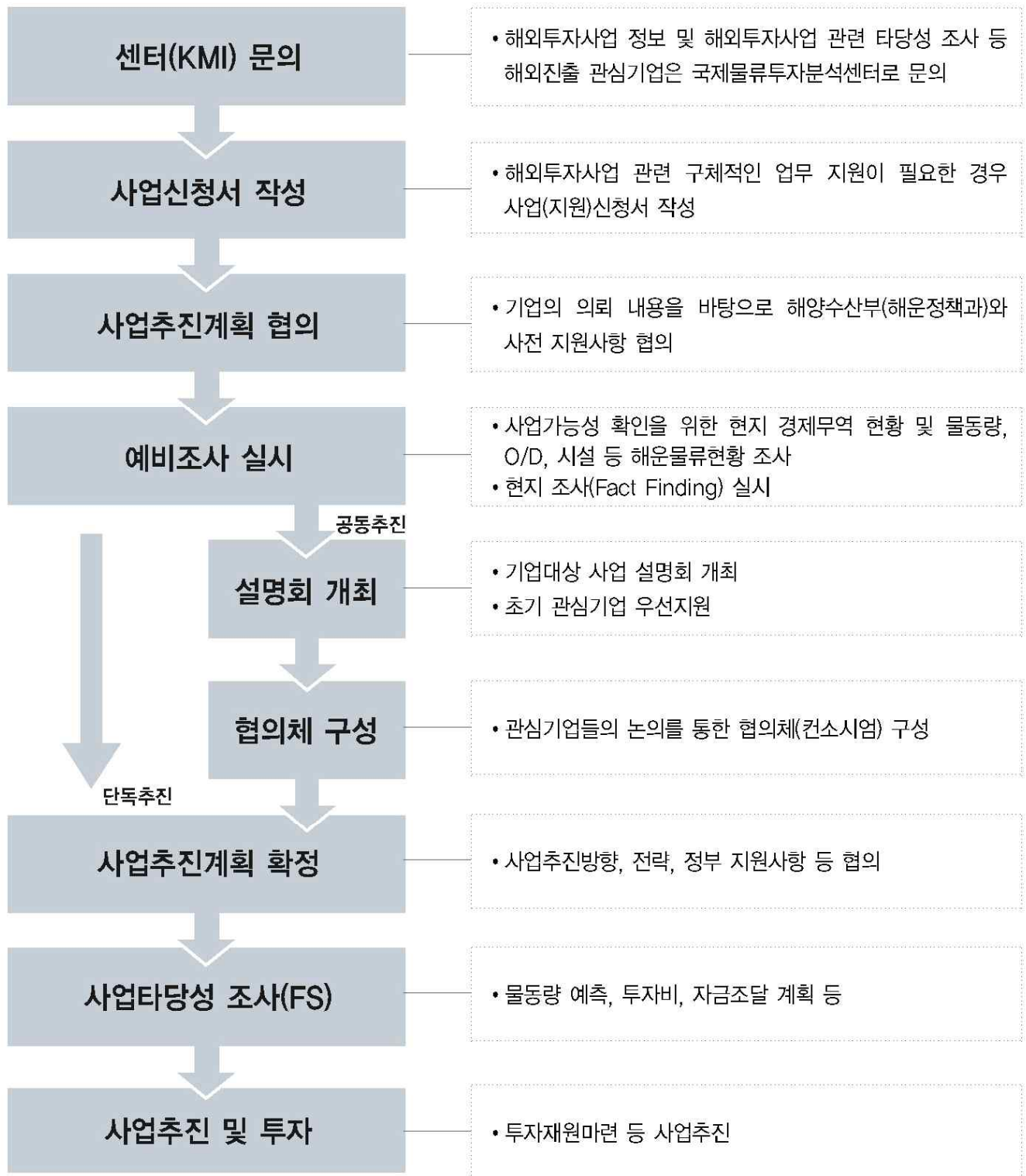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중국, 태국-라오스와 함께 복선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중국과 태국, 라오스 3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복선철도 건설이 2015년 9월 시작될 예정임
 - 태국 정부는 미화 220억불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철로망 개선 작업 및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중국 3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함
 - 중국 정부도 미화 110억불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3국과 연결되는 철로망 구축을 위해 중국 운남성 군밍구를 기점으로한 새로운 철로망 조성을 승인함
 -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람차방 컨테이너항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이 접경하고 있는 산업지역 농카이를 연결하는 약 734km의 복선철도 건설 계획임
 - 추진 중인 철도건설은 중국 운남성 군밍구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군밍구를 동남아의 육로 중심지로 지정함
 - 중국 정부가 제안한 복선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아시아지역의 관광산업 및 화물운송 사업 관련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망과 연결될 경우 유럽지역까지 연계됨으로써 인적, 물적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5.1.23.

김민경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